



기술교사에서 체육교사로 과목변경에 따른 교직경험에 대한 연구

이의재¹

《 요 약 》

본 연구는 기술 교사에서 체육 교사로 과목을 변경하여 체육교사로 14년 간 근무하고 있는 장체육 교사의 교직 경험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연구 참여자인 장체육교사를 주제보자로, 그리고 2명의 보조제보자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귀납적방법을 활용하여 자료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4가지 주제에 따라 기술되었으며 첫째, 기술 교사에서 체육 교사로의 역할 전환과정으로 운동선수 출신에서 기술교사로 시작, 과목변경의 선택과정, 길고 긴 6개월 간의 연수과정이라는 하위범주로 구성되었다. 둘째, 체육 교사로서의 적응하기(1~4년차)로 운동부 감독으로 새출발, 모방에서부터 시작된 체육수업, 지원단 활동을 통한 소통으로 구성되었다. 셋째, 체육 교사로서 익숙해지기(5~8년 차)는 자신감이 생긴 체육수업, 체육교사의 숙명, 학생부장과 학년부장 그리고 친목회장으로 구성되었다. 넷째, 체육 교사로서의 삶에 녹아들기(9~13년차)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가는 체육수업 운영, 후배 교사, 동료교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전문성 있는 장체육교사로서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처럼 기술 교사에서 체육 교사로 과목을 변경한 교사의 교직경험을 바탕으로 과목을 변경한 교사의 성공적인 적응 사례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과목 변경 시에 필요한 자질이나 교육관이 무엇인지를 탐색하는데 바탕이 되는 기초 연구로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체육교사, 과목변경, 교직경험, 교사전문성, 체육수업

1. 서원대학교 체육교육과 조교수, pelej@scowon.ac.kr (주저자)

I. 서론

2023년 초·중등 진로교육현황조사의 학생 희망직업 상위 20개의 순위를 살펴보면 과거와 다른 특징들이 존재한다. 초등학교 4위에 크리에이터, 10위에 만화가/웹툰 작가, 11위 프로그래머가 나타나며 중학생에서도 19위에 만화가/웹툰작가, 20위 크리에이터의 직업이 선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양한 직업들이 희망 직업으로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속에서도 교사라는 직업은 초등학교생들의 3위, 중,고등학생들의 직업 선호 순위 1위로 나타나고 있다(교육부, 2024). 과거에 비해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고 있고 앞으로는 더 많은 직업들이 창출 될 것으로 예상되는게 현실이다(강현주 등, 2021). 그런 와중에 대부분의 직장인들도 언제 자신의 진로가 변경될지 모른다는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전현영, 손은령, 2014). 이와 관련되어 진로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진로탄력성이라는 개념이 부각되고 있다. 진로탄력성이란 진로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기 및 역경을 극복하고 진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진로를 관리하는 능력이다(서영옥, 2024). 이처럼 진로는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는 것으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학생들이 선호 하는 교사라는 직업의 만족도는 교사들마다 천차만별로 차이가 날것이다. 한지예(2022), 송현(2024)은 초등학교 교사들이 교직을 이탈하려고 하는 이유를 분석하였는데 그 이유로 낮은 직업 만족도, 타 직종에 비해 낮은 보수, 그리고 학생들의 지도 어려움등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처럼 교사가 되더라도 평생직장으로서 살아가야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직무에 충실해야한다는 이야기는 지금의 젊은세대들과의 소통 중에는 충돌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김지혜, 변수용, 전재은(2020)의 연구에서는 중등교사들의 교직 이탈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149개교 2587명 연구 결과 25프로 이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교직 이탈 요인으로서 교직 문화에 대한 불만족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학생지도의 어려움과 학부모의 민원과 같은 직무관련 스트레스에 많이 힘들어 하고 있었다는 선행연구들이 이루어졌다(김성기, 황준성, 2012; 한수현, 강에스터, 2023).

진로는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하여 한 번에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자신이 진로에 대한 뚜렷한 주관과 의지로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되는 사례들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윤수(2024)의 연구에 따르면 사범대학 체육교육과에 입학한 여학생들이 학교생활과 교육실습, 교육봉사 등을 바탕으로 자신이 교사의 직업에 적합하지 않기에 진로전환이 이루어지는 사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유사하게 손동인, 박정호(2021)은 체육교육과 학생의 이중전공 이수경험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새로운 직업을 탐색하고, 낯선 학업

의 어려움도 경험하며, 다양한 진로를 고민하게 됨을 이야기하였고, 결과적으로 다양한 진로탐색과 진로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이중전공 및 복수전공의 경험에 관한 연구들도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신수범, 2019; 유승주, 2018; 장경호, 2018; 허은정, 김현수, 2022). 한편 국외 연구를 살펴보면 한국처럼 현직교사 연수를 바탕으로 새로운 과목을 지도하도록 하는 자격제도가 부재하며(김현정, 2016), 독일의 몇몇 주정부에서만 상치교사를 위한 연수가 진행되고 있다고 연구되고 있다(Faulkner, 2014). 또한, 그리스와 스페인에서도 일부 상치교사와 관련된 연구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지만(Salcedo-López & Cuevas-López, 2021; Glaveli, Manolitzas, & Grigoroudis, 2024) 우리나라처럼 자격을 취득하여 가르치기보다 대체 교사의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2009개정 교육과정이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일부 학교에서는 표시과목과 불일치 하는 교사들이 타 교과목을 가르치는 사례들이 나타났고(정호광, 2014), 2010년부터 임시교원 양성기관 설치인가 대학들에서 한 학기 동안 50학점 750시간의 연수를 통해 복수전공 자격증을 취득한 후 변경된 과목 교사로 근무할 수 있게 되었다(교육부, 2011). 또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고교학점제가 적용되며 다 교과의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이 필요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과목변경 또는 부전공 과정 이수를 통해 다양한 과목을 가르치게되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기술교사에서 체육교사로 진로를 전환하여 교직경험을 분석하려고 하는 연구와 유사하게 정호광(2014)은 현직교원 복수전공 자격연수 제도 출신 체육교사의 교직생활의 사례연구를 통해 복수전공 제도 출신 체육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전환되고 있었으며, 그들이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반성하고 노력하게 됨을 이야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술교사에서 체육교사로 과목을 변경한 교사의 13년간의 교직 경험을 바탕으로 체육교사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교직생활에 대하여 탐색하고자 한다. 물론 정호광(2014)의 연구를 통해 관련된 선행연구가 존재하지만 체육교사로 2년차 경험을 한 연구와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 체육교사로 13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직 경험의 의미를 탐색하고자 하기에 기존의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기술교사에서 체육교사로 전환하게 된 계기와 과정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체육교사로 13년간 지내는 과정에서 어떠한 교직경험을 하고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기술교사에서 체육교사로 과목을 변경하여 근무하고 있는 체육교사 1인을 주제보자로 선정하였다. 주제보자인 장체육은 2009년 기술교사로 초임발령을 받았으며 2010년 연수과정을 통해 2011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또한, 보조제보자 2명을 선정하였는데 보조제보자 이여름은 2009년 장체육교사와 같이 근무하며 장체육 교사가 과목변경에 도전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선배교사이며 현재까지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교류를 하고 있다. 또한, 보조제보자 김겨울은 장체육 교사와 동갑내기 체육교사로서 2011년부터 함께 교육청 지원단으로 활동하며 스포츠클럽 대회, 육상대회, 학교체육 컨설팅 등 다양한 업무를 함께하였다.

〈표 1〉 연구참여자의 기본적 특징

역할	이름	나이	성별	교직경력	주제보자를 지켜본 기간
주제보자	장체육	40대	남	기술교사 2년 체육교사 14년	-
보조제보자	이여름	40대	남	체육교사 20년	16년
보조제보자	김겨울	40대	남	체육교사 16년	10년

2.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주로 심층면담을 기반으로 실시하였다. 우선 주제보자인 장체육과는 1회당 60~100분가량 총 3회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심층면담은 비구조화된 면담으로 실시되었으며, 기술교사가 된 과정에서부터 과목변경의 계기와 체육교사로서의 13년 간의 경험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질문하고 응답하는 과정을 통해 실시하였다. 또한, 주제보자를 오랫동안 옆에서 지켜보며 기술교사로서 근무, 연수과정, 체육교사로서 지내온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보조제보자를 2명 선정하였다. 보조제보자인 이여름과 김겨울 교사와 각각 1회 60분가량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2인 포커스 그룹 면담을 1회 실시하였다. 포커스 그룹 면담은 장체육 교사의 지난 13년간의 이야기를 관찰자로서 동료 체육교사로서 바라보는 관점을 알아보는 형식으로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장체육교사를 알게된 과정부터 과목을 변경하게된 과정 그리고 함께

활동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실시하였다. 주제보자와 보조제보자의 심층면담은 모두 연구참여자에게 사전동의를 구한 후 녹음기를 활용하여 녹음하였다. 주자료인 심층면담 자료이외에 2차 자료로 장체육교사가 체육교사로서 경험하며 활동한 관련 자료들, 일지 등을 수집하여 주자료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3. 자료 분석 및 연구의 진실성

심층면담과 2차 자료로서 수집된 자료들은 전사 작업을 통해 원자료화 하였다. 자료분석은 Patton(1990)의 귀납적 분석을 바탕으로 실시하였으며, 원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며 키워드를 부여한 후 연관되는 키워드를 범주화하고 범주화된 키워드를 또 다시 개념화하며 종합하는 과정에서 최종 4가지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과 도출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에게 확인하는 구성원간 검토(Member checks)를 실시하였고, 동료간 협의(Peer debriefing)을 통해 결과 도출 내용에 연구자의 주관적 견해가 포함되거나 왜곡된 내용이 존재하는지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 검증(Triangulation)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연구의 진실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Lincoln & Guba, 1985), 연구의 윤리성 확보를 위해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동의서를 받았고,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안내하였다.

Ⅲ. 연구 결과 및 논의

1. 기술 교사에서 체육 교사로의 역할 전환과정

가. 운동선수 출신에서 기술교사로 시작

장체육교사는 과거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었다. 중·고등학교 시절 복싱이라는 격투 종목 선수로 활동했었고, 고등학교 2학년 아쉽게도 선수생활을 그만두게 되었고, 늦은 시작이었지만 고등학교 3학년 때 열심히 공부하였다. 늦은 시작의 학업이었지만 좋은 수능 성적과 작은아버지의 추천으로 C대학교 공업교육학부에 입학하여 기술교사로서의 소양을 길렀다고 하였다. 2008년 4학년때 자연스럽게 기술교사 임용을 준비하였고, 2009년 기술교사로서 경기도 A시에 발령받아 근무를 시작하였다. 첫 부임한 학교는 신설학교로 대부분의 교사들이 저경력 교사들이었

고, 신설학교의 학생부장 역할을 해야하는 상황이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학생부장의 역할을 하느라 수업보다는 업무를 추진하고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이야기하였다. 장체육 교사는 모든 초임교사들이 경험하는 것처럼 초임 시기 수업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담당 업무 처리에 대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이의재, 2015).

중·고등학교때 복수전수로 활동했어요. 물론 큰 비전이 보이지 않았기에 고등학교때 그만 두고 공부를 해서 C대학교 공업교육학부에 입학했어요. 자연스럽게 4학년 때 임용을 봐서 합격했죠. 첫 해 부임은 기술교사였어요.. 당연히 기술교과로 시험을 봤으니까요. 그런데 신설학교로 발령이 나는바람에 선생님들도 몇분안계시고... 체육과는 막내인데 저보고 학생 부 업무를 하라고하더라구요... 막막했죠. (장체육 교사와 1차 심층면담 중)

나. 과목변경의 선택과정

장체육교사에게 2010년은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시기였다. 교감선생님께서 복수전공을 통한 과목변경에 대한 공문을 보여주며, 장체육교사에게 체육교과로의 전환에 대해 소개를 해줬고, 남 교사들 간의 관계에서도 활동적이고 운동을 즐겨하는 모습을 봤던 교감선생님의 권유로 장체육교사는 과목 변경을 고민하게되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선배 체육교사인 이여름 교사의 역할도 크게 작용하였다. 학교의 유일한 체육교사였던 이여름 교사는 장체육교사를 1년 동안 지켜보며 체육교사로서의 충분한 자질이 있다는 점들을 파악하였고, 복수전공 연수를 토대로 체육교사로 지내면 더 즐거운 교직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하였다. 교감선생님과 이여름 선생님의 조언을 토대로 장체육교사는 복수전공 연수를 신청하여 과목을 변경을 결정하게 되었다. 장체육교사는 이 시기에 복수전공 연수를 통해 과목변경을 한 교사들과는 약간은 다른 배경을 지니고 있었다(김재은, 조홍식, 2014; 정호광, 2014). 그렇기 때문에 과목을 변경하는데 있어서 거부감이 있거나 걱정, 두려움을 가지기 보다는 긍정적이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신수범, 2019).

2010년 교감선생님이 저에게 과목변경 공문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종종해보요. 기술교사로 계속 근무했다면 내가 과연 계속 교직에 있었을까? 그런생각도 들어요. 과목변경의 기회가 왔을 때 약간의 고민은 있었지만 무조건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장체육 교사와 1차 심층면담 중)

장체육교사는 어려서 운동을 했기도 했고... 기술교사로 부임한 후에도 운동을 많이 하고 있었던걸 알았기에 기술보다는 체육이 더 어울릴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조언을 구할 때도 과목변경을 통해 훨씬 더 교직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거라고 이야기했구요... 그 뒤로 지내는거만 봐도 본인의 역할을 너무 잘하고 있어서 그때 강하게 추천하길 잘했다싶어요. (이여름 교사와 심층면담 중)

다. 길고 긴 6개월 간의 연수 과정

과목변경을 신청한 후 장체육교사는 2010년 6개월 간 자격 연수과정을 통해 체육교사로서 근무하기 위한 교과 교육학적 지식과 실기능력들을 기르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워낙 운동을 좋아했고, 평소에도 즐겨하기에 큰 걱정은 없었지만,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배드민턴, 축구, 농구와 다르게 기계체조, 육상 등의 종목들을 배울 때는 대학생의 마음으로 새롭게 종목들을 배워나가고 있었다. 또한 체육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체육교육학적 지식을 길러나가는 데도 연수과정은 의미있는 시간으로 보내지고 있었다. 그리고 자격연수 또한 장체육교사의 모교였던 C대학교에서 이루어져 6개월 간의 자격연수 기간을 행복하고 흥미롭게 보냈다고 하였다. 하지만 장체육교사도 선행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학교 현장에서 적용되기 어려운 골프, 수영, 테니스 등의 수업내용들보다는 현장에서 많이 활용되는 종목 위주의 수업이었다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다(정호광, 2014)

한 학기 동안의 자격연수 기간이 사실 제가 다녔던 모교에서 진행이 되니까 부담이 훨씬 덜 했어요. 익숙함? 이렇게 일단있으니까요. 그리고, 체육을 제대로 배워서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를 고민해야하는 시기였으니까요... 연수기간이 저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물론 100프로 만족하진 않지만요. (장체육 교사와 1차 심층면담 중)

2. 체육 교사로서의 적응하기(1~4년차)

가. 운동부 감독으로 새출발

장체육교사는 6개월 간의 연수를 받고 2011년 새로운 학교에 체육교사로 발령을 받게 되었다. 체육교사로 처음 시작한 업무는 운동부 감독교사의 역할과 체육수업을 담당하게 되었다. 운동부를 담당하게 처음에는 부담이 되었지만 지금에서 되돌아보면 운동부를 담당하면서 태권도부원

들에게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도하는 과정에서 체육수업을 이끌어가는데에 대한 자신감을 많이 얻을 수 있었다고 하였다. 운동선수로서의 경험과 운동을 지속하고있는 동호인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태권도부 학생들에게 기초체력 훈련 및 다양한 훈련들을 시킬 수 있었고, 이러한 훈련들이 나중에 태권도부 학생들이 여러차례 입상을 하는데 도움이 되며 자존감이 더욱 높아질 수 있었다고 하였다. 대부분의 체육교사들은 운동부지도에 대한 거부감 또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게 사실이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수없이 많이 이루어졌다. 운동부 지도를 부담스러워하는 이유로는 행정업무, 출장, 진학지도, 선수수급 등의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한다(박인서, 2023; 최규현, 권도원, 손혁준, 2024). 하지만, 장체육교사는 그런 점들을 모두 수용하며 체육교사로서 정체성을 확립해가고 있었다.

첫 업무가 운동부 담당이라 사실 부담이 되었죠... 그래도 체육교사로서 언젠가는 해야할 일이라는건 워낙 많이 들어서요. 자신감 있게 즐겁게 해보자는 마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체육수업에서 자신있게 하지 못했던 수업들을 태권도부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성과가 나는 걸 보면서 나의 교육방향을 어떻게 잡아가야 하는건지도 알아가고 있었구요. (장체육 교사와 1차 심층면담 중)

장체육교사가 첫 업무를 운동부를 담당했다고 하여 사실 걱정은 좀 되었어요. 출장도 있고 코치를 관리하는 업무, 운동부 학생 및 학부모 관리 등 걱정되는 부분들이 분명 있거든요. 물론 장체육교사도 선수출신이기에 잘 해낼거라고 믿었지만 걱정을 안하지는 않았어요.

(이여름 교사와 심층면담 중)

나. 모방에서부터 시작된 체육수업

장체육교사가 운동부를 지도하며 체육수업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있었지만 가장 근본이 되었던 체육수업의 방향은 선배 체육교사들의 수업을 따라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장 함께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 장체육교사를 제외한 4명의 체육교사들이 있었기에 선배교사들의 수업을 보며 자신만의 수업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또한, 다양한 연수를 찾아 다니며 체육수업의 사례공유를 통해 수업 역량을 길러가고 있었다. 이는 전공변경 체육교사가 아닌 대부분의 초임 체육교사들에게서도 관찰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장체육교사는 자신만의 교육철학을 정립하기 위한 적응기를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이의재, 유정애, 2016).

우선 나 자신을 믿고 나의 장점을 바탕으로 체육수업을 이끌어 나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다양한 연수라던지 교육이 있으면 쫓아다녔죠... 선배교사들의 수업 그리고 후배교사들의 체육수업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많이 이야기했어요. 혼자서 고민하는 것보다는 많이 들어야하니까요... (장체육 교사와 1차 심층면담 중)

다. 지원단 활동을 통한 소통

장체육교사가 체육교사로서 전문성을 기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지역의 스포츠클럽 지원단 활동이었다. 학기 초 육상대회 운영, 종목별 스포츠클럽 운영과 관련된 회의를 통해 학교 체육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동료 체육교사들과 소통하며 추진한다는 점에서 장체육교사는 점차 체육교사로서 자리잡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러한 소통 자리는 단순히 육상대회 운영, 스포츠클럽대회 운영을 넘어 많은 체육교사들과 체육수업, 운동부 업무, 체육부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장체육교사 스스로 잘하고 있는 점과 잘못하고 있는 점은 무엇인지 반성하며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었다. 이러한 지원단 활동은 P지역으로 옮기기 전 6년간 지속되었다. 체육교사학습공동체의 효과로서 장체육교사와 동일한 유형의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학습공동체의 가장 큰 효과로는 수업에 대한 전문성을 기를 수 있다는 점도 있지만, 많은 체육교사들을 알게 되어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고 이러한 인적네트워크가 체육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데 든든한 지원배경이 되고 있었다(이의재, 2015).

지원단 활동을 하면서 나이가 비슷한 체육교사들을 만나게 되고 다른학교에서 열심히 하는 선후배들을 보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거기서 운동부 이야기 체육수업 이야기 등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체육교사로서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장체육 교사와 2차 심층면담 중)

장체육교사는 육상대회에 지원을 나가서 처음보기 시작했어요. 그 뒤로 지원단 활동을 하면서 1년에 3번씩은 정기적으로 보면서 G지역의 학교체육 활성화와 관련된 소통을 많이 했죠. 나이가 동갑이라 편하게 서로 다가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엔 자신없어 하던 장체육교사가 몇 년 뒤에는 G지역에서 큰 역할을 함께 하는 걸 보면서 저도 뿌듯했어요. (김겨울 교사와 심층면담 중)

3. 체육교사로서의 익숙해지기(5~8년차)

가. 자신감이 생긴 체육수업

평소 워낙 운동을 좋아하던 장체육교사였기에 체육교사로서 체육수업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은 없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체육수업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자신이 즐겨하던 종목들을 체육수업에 적용하여 가르치고 있었다. 크로스핏을 통해 체력을 향상시키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 운영, 야구를 변형한 티볼경기를 통해 학생들에게 필드형 스포츠의 경험을 해주기도 하였으며, 배드민턴을 조금더 체계적으로 배워 레슨을 받은 후 학생들에게 배드민턴 레슨을 해주기도 하였다. 이처럼 본인 스스로 배워서 가르치는 과정들을 통해 수업에 대한 자신감이 더욱 생기고 있었으며, 체육교사로서 점차 익숙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또한, 장체육교사는 방학중에도 학생들과 수업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 방학 중에도 다양한 스포츠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였다. 또한 종목별 스포츠클럽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희망하는 다양한 종목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운영하고 있었다(장경환, 2024; 정현우, 진연경, 2023).

애들한테 내가 잘하는 종목을 먼저 가르쳐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웨이트도 많이 하고 그때 당시에 크로스핏을 한참 했거든요. 애들한테 적용시켜봤어요. 처음엔 왜 이런걸 해야하나고 했지만 건강한 신체를 위해 몸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 하면서 진행했는데 생각보다 애들이 잘 따라와줘서 자신감이 더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야구 교사 동호회 활동도 하고 있던 상황이라 야구수업을 해보고 싶었지만 무리가 될 것 같아 티볼 수업으로 했는데 성공적으로 단원을 마무리하면서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장체육 교사와 2차 심층면담 중)

나. 체육교사의 숙명, 학생부장과 학년부장 그리고 친목회장

대부분의 체육교사들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학생부장, 학년부장등의 중요업무를 체육교사들이 도맡아 운영한다는 점들이다. 또한 어느 학교에서도 운영되는 친목회, 상조회를 담당하는 업무도 체육교사들이 맡아서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장체육교사도 벗어날 수 없는 숙명이었다. 학생부장, 2학년 부장, 3학년 부장 등 체육부 부장이 아닌 다른 부장 역할들을 수행하였다. 물론, 이러한 역할 수행은 부서 계원들, 관리자들에게 좋은 인식을 심어주어 장체육교사의 인성

과 역량을 인정받는데 도움이 되고 있었다. 초등학교에서는 남교사를 찾기 어렵다고 하는 뉴스들이 종종 나오는데 중·고등학교는 초등학교 수준은 아니지만 대략 20% 정도는 남교사들이 구성원으로 포함되어 있다(매일신문, 2024; 위키트리, 2022). 하지만, 젊은 남교사들이 배치된 학교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장체육교사처럼 다른 교사들이 기피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업무들을 자신의 희생과 배려를 바탕으로 학교를 우선 시 생각해주는 교사들이 더욱 필요하다. 이처럼 장체육교사와 같은 교직관을 가진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 더 많아진다면 교직의 이탈에 대한 걱정은 조금 덜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한수현, 강에스더, 2023).

H 중학교로 가서 담임 한 번 하고 바로 학년부장, 학생부장 순서대로 쫓했어요. 체육과에서 사실 학생부장을 많이 하니까요.. 물론 저도 하기 싫었죠... 어떤 교사들이 학생부장을 하고 싶어하겠어요... 그렇다고 저도 다른 교사들처럼 못한다고 하기는 싫었어요. 그래서 하긴 하겠지만 많이 도와주셔야 한다. 그리고 최대 2년입니다. 2년 이상시키시면 반칙입니다. 라고하면서 관리자들하고 이야기했어요. (장체육 교사와 2차 심층면담 중)

4. 체육 교사로서의 삶에 녹아들기(9~13년차)

가. 시대의 흐름에 맞춰가는 체육수업 운영

P지역으로 옮긴 후 한번 더 학교를 옮겨 소규모학교인 S학교에서 근무하던 장체육교사는 코로나 시기를 경험하고 온라인, 오프라인 체육수업을 경험하며 디지털 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사업이었던 IT체육교실에 응모하여 선정되며 IT체육교실을 구축하여 학생들과 비가오거나 미세먼지가 생기더라도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환경을 조성하고 있었다. 이것은 체육교사로서 체육수업에 대한 전문성이 향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었다. ‘2015개정교육과정에서 2022개정교육과정으로 개정되는 과정에서 체육과 교육과정 교수학습방향에도 디지털기기를 활용한 교수학습의 활성화 측면이 언급되고, AI 디지털역량 강화, 소프트웨어교육, 정보 관련 교육이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신용수, 김동호, 2023)에서 체육교과에서도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수업 흐름을 따라가는 장체육교사의 열정을 동료교사였던 이여름 교사와 김겨울 교사는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장체육교사는 이제 과목변경 체육교사가 아니라 그냥 체육교사 같아요. 작년에 IT체육교실 사업 따워서 운영하는 걸 보면 오히려 저희보다 나은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반성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여름 교사, 김겨울 교사와 포커스 그룹 면담 중)

그림1. 장체육교사의 근무학교 IT 체육교실 현황



나. 후배 교사, 동료교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전문성 있는 장체육교사

체육교사로서 10년이 넘어가는 경험을 하며 장체육교사는 이제 초임 체육교사가 아닌 어느덧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지닌 중견교사로 성장하고 있었다. 장체육교사는 G지역에서 P지역으로 옮기면서도 지원단 활동을 지속하였고, P지역에서는 PAPS 상담교사로서 초,중,고등학교의 팝스와 관련된 컨설팅을 지속하고 있었다. 또한, 2023년에는 2022 개정 체육과교육과정에 따른 전국 단위 선도교원 연수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교사로 참가하기도 하였다. 장체육교사를 과거에서부터 지켜보지 않았던 교사들은 장체육교사가 기술교사에서 체육교사로 과목을 변경하였다는 과거를 들으면 오히려 놀랄 정도였다. 장체육교사는 이제 경력교사로서 지역의 학교체육을 담당하고, 후배교사들과 동료 교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는 위치로 성장하였다. 체육교사로서 많은 교사들이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게된다. 일반승진을 통한 교감승진, 전문직 준비 등 다양한 고민들을 하는 것처럼(이의재, 문호준, 2024) 장체육교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그 고민의 결과, 본인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여 체육수업을 진행하고, 학교체육을 활성화시키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어느 체육교사들보다도 더욱 부지런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체육교사로서 교직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다.

10년이 넘어가면서 이제는 체육교사로서 어색함은 없어진 것 같아요. P지역에서도 지원단 활동을 하면서 팝스컨설팅도 하고 스포츠클럽 운영도하고... 이제는 후배교사들과 동료교사들을 지원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어찌보면 이것도 귀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저의 체육교사로서의 초임시기를 생각하면 누구나 경험하고 있을 어려움을 같이 극복하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장체육교사와 3차 심층면담 중)

장체육교사도 저도 팝스 지원단을 하니깐 서로 모르는걸 물어보면서 어떻게 대응해줘야할지 이야기도 많이했어요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걸 친구이자 동료체육교사이자 동반자로서 서로 의지하면서 지내요. 고민되는게 있으면 서로 같이 의논하구요.(김겨울 교사와 심층면담 중)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기술교사에서 체육교사로 과목을 변경한 체육교사의 교직경험을 토대로 어떻게 체육교사로서 적응해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기술교사에서 체육교사로 과목을 변경한 후 14년이 지난 1명의 체육교사를 주제보자로 선정하였고, 주제보자와 함께 체육교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2명의 보조제보자를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심층면담을 토대로 자료수집을 실시한 후 귀납적분석을 활용하여 4가지 주제로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기술교사에 체육교사로 역할 전환과정, 둘째, 체육교사로서의 적응하기(1~4년차), 셋째, 체육교사로서 익숙해지기(5~8년차), 넷째, 체육교사로서의 삶에 녹아들기(9~13년차)로 결과를 도출되었으며, 기술교사에서 체육교사로서 과목을 변경한 후 14년간 근무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교직생활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탐색하였다.

고교학점제가 2025년 적용되고 학교에서 복수전공, 부전공 교사들을 양성하여 다양한 과목들을 운영하는데 기반을 만들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과목을 변경한 체육교사는 어떻게 교직에 적응하고 있는가를 알아봄으로써 복수전공, 부전공을 이수하고 가르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가를 알아볼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인 장체육교사는 과거 운동선수 출신이라는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술교사에서 체육교사로 과목을 변경하는데 크게 부담감이나 걱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대부분의 복수전공, 부전공을 이수하려고 하는 교사들의 경우 이러한 사례들 보다는 본인의 관심 전공이기 때문에 진행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손동인, 박정호, 2021; 유승주, 2018). 그렇다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복수전공 및 부전공을 이수하고 가르치는 과정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가를 탐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장 기본적으로 교과 내용적 지식은 물론 교과 교육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틀도 중요하겠지만, 본인이 해당 과목에 대한 관심도와 열정이 어느정도 있느냐에 따

라 가르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다를 것이다(김수선, 고상숙, 2015). 하지만 이러한 선행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에 본 연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후속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1명의 연구참여자를 제한했다는 점에서 다양한 후속 연구 제언 할 수 있겠다. 이미 2010년 전·후로 복수전공을 토대로 체육교사로 과목을 변경한 교사들이 수십명에 이른다(김현정, 2016; 정호광, 2014). 그 교사들의 교직 만족도나 수업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10년 이상 지난 과목변경 교사들이 어떻게 체육교사로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양적 연구가 수행되어 기초자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기술교사에서 체육교사로서 과목을 변경하여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지만, 체육교사로서 과목을 변경하였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삶을 지내는 사례도 존재할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사례를 탐색하여 과목변경후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교사의 경우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 요인을 분석하여 복수전공을 희망하는 교사들에게 올바른 복수전공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논문 투고일: 2024. 9. 11. ※ 논문 수정일: 2024. 11. 1. ※ 게재 확정일 : 2024. 11. 29.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11). **현직교원 복수전공 자격취득 활성화 계획**.
- 교육부(2024). **2023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보고서**.
- 강현주, 이효섭, 김정원, 조대연(2021). 4차 산업혁명 시대 청소년을 위한 미래 직업탐색 및 직업체험 선호도 조사. **중등교육연구**, 69(1), 61-92.
- 김성기, 황준성(2012). 초·중등 교원의 명예퇴직 사유 분석. **한국교원교육연구**, 29(4), 109-127.
- 김수선, 고상숙(2015). 과목변경수학교사의 신념에 따른 교수 실체에 관한 연구. **수학교육 논문집**, 29(3), 373-389.
- 김재은, 조홍식(2014). 사범대학 체육교육전공 대학생의 갈등에 관한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4(4), 229-247.
- 김지혜, 변수용, 전재은(2020). 누가 교직을 떠나려 하는가? 중학교 교사 교직 이탈 가능성 예측요인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30(4), 89-112.
- 김현정(2016). **중등 교수과목 변경 교사의 교과지식 전문가로서의 정체성 탐색**.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매일신문(2024.10.16.) 학부모들 “남자교사는 로또당첨”...“여초현상”심화되는 교직사회.
- 박인서(2023). 어느 체육 교사의 학교 운동부 지도 경험에 대한 회의적 담론. **교육문화연구**, 29(2), 409-428.
- 서영옥, 김지현, 김현주(2024). 지역사회지지가 중학생의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영향: 공동체 의식, 진로탄력성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활동연구**, 10(2), 27-48.
- 손동인, 박정호(2021). 체육교육과 학생의 이중전공 이수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60(6), 55-69.
- 송현(2024). **저경력 초등교사의 교직 이탈 의도에 관한 질적 연구**.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송혜은(2019). **경력전환교사의 교사정체성 형성과정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신수범(2019). 중등 정보교사 복수전공 특별양성과정의 개선방안. **창의정보문화연구**, 5(3), 285-293.
- 신용수, 김동호(2023). AI·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초등학교 교사 재교육 방안. **학교와 수업 연구**, 8(1), 29-51
- 유승주(2018). 복수전공학생들의 수강결정요인과 갈등 및 자기개발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상담심리교육복지**, 5(3), 19-39.
- 위키�트리(2022.10.02.). “남교사, 여교사보다 3배 적다” 성비 불균형 심각.
- 이운수(2024).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여학생의 진로 전환의 의미 탐색. **한국웰니스학회지**, 19(1), 35-41.
- 이의재(2015). 초임체육교사의 교육실천공동체 참여 실태 분석.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22(3), 23-50.
- 이의재, 유정애(2016). 교육실천공동체활동을 통한 초임 체육교사의 성장과정 이해. **한국체육학회지**, 55(1), 285-298.
- 이의재, 문호준(2024). 체육교사의 교육전문직 준비과정에 대한 탐색. **교육발전**, 44(1), 141-158.
- 장경호(2018). 사범대학 학생의 다중전공 선택 요인 분석. **경제교육연구**, 25(1), 137-153.

- 장경환(2024). 포괄적 학교체육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사례 연구. **학교와 수업 연구**, 9(1), 87-107.
- 전현영, 손은령(2014). 두 50대 남성 직장인의 진로전환의 삶에 관한 질적연구 : 생계와 자아실현 사이. **상담학연구**, 15(2), 675-694.
- 정호광(2014). **현직교원 복수전공 자격연수 제도 출신 체육교사의 교직생활 사례연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규현, 권도원, 손혁준(2024). 체계적 문헌분석을 통한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경험 및 인식 탐색. **교과교육학연구**, 28(2), 139-154.
- 한수현, 강에스더(2023). 젊은 초등교사 교직 이탈 시대의 원인과 해결방안 : Honneth의 인정이론에 기반하여. **한국교원교육연구**, 40(3), 171-200.
- 한지예(2022). **교사의 교직 이탈의도 탐색 연구: 통합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허은정, 김현수(2022). 예비교원의 다전공 이수 제도 개선 방안 탐색. **열린교육연구**, 30(2), 1-17.
- Faulkner, F. (2014). *The professional deploma in mathematics for teaching-upskilling 'out of field' teachers of mathematics in ireland*. In L. Hobbs, & G. Torner (Eds.). Taking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on "out-of-field" teaching: Proceedings and agenda for research and action from the 1st Teaching Across Specialisations(TAS) collective symposium (pp.21-22). TAS Collective
- Glaveli, N., Manolitzas, P., & Grigoroudis, E. (2024). Substitute vs permanent teacher job satisfaction: applying MUSA to delineate differences and highlight evidence-based guidelines for decision makers. *Kybernetes*, 53(1), 492-511.
-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Newbury Park, CA: Sage.
- Patton, M. Q. (1990). *Qualitative evaluation and research methods*. Thousand Oaks, CA: Sage.
- Salcedo-López D, Cuevas-López M. Analysis and Assessment of New Permanent Teacher Training Activities under the Erasmus+ Program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articipants of Spain in Times of COVID-19. *Sustainability*. 2021; 13(20):11222.

〈Abstract〉

A Study on the Teaching Experience by Changing the Subject from Technical Teacher to Physical Education Teacher

Lee, EuiJae¹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teaching experience of Jang, who has been working as a physical education teacher for 14 years by changing the subject from a technical teacher to a physical education teacher. Accordingly, data were collected through the subject of Jang, a participant in the study, and two auxiliary informants, and data were analyzed using an inductive method. The research results were described according to four topics, and first, the role transition process from a technical teacher to a physical education teacher was composed of subcategories ranging from athlete to a technical teacher, a course to select a change of subject, and a long, 6-month training course. Second, adapting as a physical education teacher (1st to 4th year) consisted of a new start as a director of the sports department, physical education classes starting from imitation, and communication through support group activities. Third, getting used to being a physical education teacher (5th to 8th year) consisted of a physical education class that gained confidence, the fate of a physical education teacher, the head of the student department and the head of grade, and the chairman of a social group. Fourth, melting into life as a physical education teacher (9th to 13th year) resulted in the operation of physical education classes that fit the trend of the times, junior teachers, and fellow teachers as helpful teachers. By providing a successful case of adaptation of a teacher who has changed subjects from a technical teacher to a physical education teacher based on the teaching experience of a teacher who has changed subjects, it is expected to be provided as a basic study to explore what qualities or educational centers are needed for future subject changes.

Keywords : Physical education teacher, subject change, teaching experience, teacher expertise, physical education class

1. Assistant Professor, Seowon University, pelej@seowon.ac.kr